

# 《萬曆野獲編》 翻譯 및 註釋(3)

宋貞和\* · 李承信\*\* · 蔡守民\*\*\*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백관에게 먹을 것을 하사하다(賜百官食)
3. 국초실록(國初實錄)
4. 실록을 감수하다(監修實錄)
5. 피휘(避諱)
6. 세문(璽文)

## 1. 들어가는 말

《萬曆野獲篇》은 明代 문학가 沈德符가 지은 歷史瑣聞類 筆記로, 명초부터 萬曆 연간에 이르는 典章制度, 민족과 대외관계, 山川地理, 經史子集, 佛道の 종교와 민간풍습, 문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고에서 번역하고 주석한 <賜百官食>, <國初實錄>, <監修實錄>, <避諱>, <璽文> 의 다섯 편은 이 책의 앞부분인 <列朝>에 해당하며, 주로 명초부터 만 력 연간까지의 황실과 조정, 實錄의 監修 체계와 구성, 避諱, 玉璽에 관련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명대 사실들을 위주로 기록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唐宋代의 역사적인 사실들도 쓰고 있어서 역사에 대한 작자의 광범위한 지식

\* 梨花女大 中文科 강사(주저자)

\*\* 韓國產業技術大 지식융합학부 외래교수(교신저자)

\*\*\* 高麗大 세종캠퍼스 中國學部 강사(교신저자)

과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만력야획편》의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역사와 문학적인 각도에서 논할 수 있는데, 특히 본고에서 번역한 <列朝>는 사료적인 가치가 풍부하다. 《만력야획편》은 국가의 법률, 제도, 정치, 역사 등에 관련된 분량이 전체의 70%에 이르며<sup>1)</sup>, 심덕부 스스로도 역사가의 입장에서 일률적인 史書의 폐단을 비판하고 역사 편찬의 신중함과 책임감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초실록>에서 심덕부는 건고하고 진실한 역사기록이라고 여기는 실록이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수정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현 왕조의 《太祖實錄》은 建文 연간에 편찬되었는데, 王景 등이 總裁였다. 나중에 永樂帝가 靖難의 변을 일으킨 뒤 曹國公 李景隆에게 다시 감수하도록 명했는데, 총재는 解縉이었으며, 옛 초본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 뒤 永樂 9년에 또 완성하지 않다고 여겨 姚廣孝에게 감수하도록 다시 명하였고, 총재는 楊士奇였다. 지금 전하는 판본이 이것이다. 그런데 예전에 두 차례 편찬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sup>2)</sup>

위의 문장에 따르면 《태조실록》은 본래 건문제 때 처음 편찬됐으나 정난의 변 때 다시 조국공 이경용이 감수하면서 초본은 사라졌으며 이후 영락제 때 요광효의 감수 하에 다시 편찬된다. 심덕부는 《태조실록》이 다시 쓰이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감수실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洪武 35년 7월은 실제로는 건문 4년으로, 영락제가 새로 즉위했다. 예전에 知府였던 葉惠仲 등이 《태조실록》을 편찬할 때 정난의 변을 일으킨 군신들을 역모의 무리라고 지탄했다가 사형에 처해지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비로소 다시 편찬하도록 명이 내려졌다. 그 때 감수자는 조국공 이경용, 忠誠伯 茹瑺으로, 文官과 武官이 각각 한 명씩이었는데 모두 勳臣이었다.<sup>3)</sup>

1) 송정화·이승신·채수민, <《萬曆野獲編》 翻譯 및 註釋(1)>, 《中國語文論叢77》, 2016, 412쪽.

2) 《萬曆野獲編·列朝》<國初實錄>: 本朝太祖實錄修於建文中, 王景等爲總裁. 後文皇靖難, 再命曹國公李景隆監修, 而總裁則解縉, 盡焚舊草. 其後永樂九年復以爲未善, 更命姚廣孝監修, 總裁則楊士奇, 今所傳本是也. 然前兩番所修, 則不見矣.

영락은 명나라의 3대 황제인 成祖 영락제 朱棣의 연호이며, 성조는 정난의 변을 일으켜 2대 황제인 惠宗 建文帝 朱允炆을 폐하고 스스로 황위에 오른다. 이렇게 반란을 통해 제위에 오른 영락제는 이전의 《태조실록》에 기록된 정난의 변에 대한 기록을 새롭게 쓰고자 했고, 영락제에 의해서 《태조실록》은 다시 쓰이게 된다. 물론 영락제 이전에 기록된 《태조실록》은 지금 사라지고 없다.

심덕부는 이렇게 여러 번 수정 작업을 거쳐 실록이 전해져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조정에서 편찬된 실록은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기보다는 정권에 부합하여 미화하는 데에 치중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실록은 이미 주제넘게 함부로 비교하는 부류가 되어 역대 황제들을 더 미화시키고자 했으니 식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 중요하게 여기기에는 부족하다.<sup>4)</sup>

<열조>의 <국초실록>과 <감수실록>에 보이는 심덕부의 태도는 그가 비록 조정의 史官은 아니었지만, 사서의 폐단과 한계를 목도하면서 책임 있는 역사를 편찬한다는 신중한 태도로 《만력야획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심덕부에 따르면 실록이 역사서로서 권위를 상실하게 된 데에는 감수가 당시의 훈신으로만 충당됐던 원인도 있다. 정치적인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시비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으려면 실록의 감수자는 세습된 공신인 훈신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태조실록》뿐 아니라 《仁宗實錄》, 《宣宗實錄》 모두 훈신들이 총감독뿐 아니라 감수를 맡았다. 嘉靖 연간에는 世宗 嘉靖帝 朱厚熜이 아버지 興獻王의 사적을 기록한 《興獻錄》을 편찬하도록 했다. 定國公 徐光祚, 吏部尙書 廖紀, 禮部尙書 席書가 감수한 이 책은 흥헌

3) 《萬曆野獲編·列朝》<監修實錄>: 至洪武三十五年七月, 實建文四年也, 文皇新即位, 以前任知府葉仲惠等修《太祖錄》指斥靖難君臣爲逆黨, 論死籍沒, 本年十二月始命重修. 其時監修者爲曹國公李景隆忠誠伯茹瑺, 雖文武各一人, 皆助臣也. ○《萬曆野獲編》 원문에는 '葉仲惠'로 되어 있으나, 제반 사서를 근거로 살펴보면 '葉惠仲'의 오키로 판단된다. 상세한 이유는 각주 85)를 참조하기 바람.

4) 《萬曆野獲編·列朝》<監修實錄>: 然實錄已屬僭擬, 卽欲加隆於列聖之上, 徒爲識者所哂, 無足爲輕重也.

왕을 미화했으며, 이에 만족한 세종은 이들에게 상까지 내렸다.<sup>5)</sup>

<賜百官食>은 명대에 조정의 관리들에게 음식을 하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명절과 음식의 명칭을 자세하게 밝힌 것이 흥미롭다.太祖 때에는 立春에 春餅을, 정월대보름에 새알심 떡을, 사월 초파일에 不落夾을, 오월 단오에 糰子를, 구월 중양절에 중양절 떡을, 선달 초파일에는 臘八麵을 하사했다. 그런데 본래 사월 초파일에 석가탄신일을 기념해 석가의 이름을 딴 不落夾을 하사하던 것이 世宗 때에 와서 날짜가 4월 5일로 바뀌고 음식도 新麥麵으로 바뀐다. 《만력야획편》에서 심덕부는 이러한 변화를 세종의 抑佛정책과 관련 지어 해석한다. 실제로 세종은 초기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벌이지만 점차 궁에 은둔하며 도교의 方術에 심취해서 급기야는 方士들을 궁내로 대거 불러들여 그들이 만든 丹藥을 먹고 중독돼 사망하기까지 했다.<sup>6)</sup>

다음으로 <피휘>에서는 명대 초기에 있었던 특이한 피휘의 예를 기록하고 있다. 명 태조 朱元璋은 자손들이 번창하면서 이름이 중복될 것을 염려해 직접 자손들의 이름에 쓸 수 있는 글자들의 원칙과 방법을 정했다. 주원장은 자신의 스물세 명의 아들을 각각 太子房, 秦王房, 晉王房, 燕王房 등으로 분류하고, 쓸 수 있는 글자를 스무 개로 제한했다. 보통 두 개의 글자로 구성된 이름의 앞 글자는 태조가 직접 정했고, 뒤의 글자는 火, 土, 金, 水, 木의 五行의 순서에 따라 偏旁을 쓰도록 했다. 심덕부는 2대 황제인 혜종 주윤문이 아버지 朱標의 시호인 懿文太子에 文자가 있음에도 피휘하지 않고 允炆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한 까닭은 바로 태조의 작명법에 연유했음을 밝히고 있다.

<새문>에서는 명대 玉璽에 새겨진 글귀와 글자 수 그리고 옥새가 탄생하게 된 과정에 얽힌 신비한 내력이 기록되어 있다. 건문제는 꿈속에서 상제의 명을 받은 神人을 통해 옥새를 받고 실제로 옥새를 만들게 된다. 그러나 건문제가 만든 凝命寶는 영락제에 이르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했

5) 《萬曆野獲編·列朝》<監修實錄>: 唯嘉靖間修《興獻錄》, 以定國公徐光祚吏部尚書廖紀禮部尚書席書爲監修官, 蓋用祖宗初年故事, 以重其典. 書成, 各受上賞.

6) 陶希聖 等, 《明代宗教》(臺北: 臺灣學生書局, 1968), 248-251쪽.

듯이 영락제는 정난의 변을 일으켜 건문제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심덕부는 옥새의 운명을 통해 正史에서 은폐된 이면의 정치적인 상황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봤듯이 본고의 연구대상인 <열조>의 <사백관식>, <국초실록>, <감수실록>, <피회>, <새문>의 다섯 편은 정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역사 이면의 사건과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명대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sup>7)</sup>

## 2. 백관에게 먹을 것을 하사하다(賜百官食)

太祖 때에는 백관이 조회에서 퇴청할 때 반드시 조정에서 음식을 하사했다. 대체로 법을 운용할 때는 엄격했지만 신하를 다룰 때는 예를 갖췄다. 게다가 태조 때에는 매일 신하들을 만나 물음에 답하시면서 추위와 더위를 개의치 않으셨으니, 근심하고 애쓰심도 이러했을 것이다.

말년에 이르면 음식을 하사하는 일이 또한 점차 드물어졌다. 매일 초하루와 보름날에만 각 관아의 높고 낮은 당상관들에게 모두 술과 음식을 대접했는데, 3대가 모두 그랬다는 것이 역대 문헌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正統 7년에 와서야 光祿卿 奈亨이 처음 그것을 그만두자고 上奏했다. 정월 초하루와 동지 이 두 큰 명절 연회는 예부가 주청해서 거행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예를 들어 입춘에는 春餅을 먹고, 정월대보름 저녁에는 새알심 떡을 먹으며, 사월 초파일에는 不落夾을, 오월 단오에는 糰子를, 구월 중양절에는 중양절 떡을, 선달 초파일에는 臘八麵을 먹는데, 모두 광록경이 사전에 보고했다.

조회에 참석한 관원들이 관례에 따라 천자가 하사하신 음식을 배불리 먹으니 태평시절 연회의 광경이기도 하다. 천자의 생신이 되거나 교외에서의 제사

7) 본고에서는 沈德符 撰, 《萬曆野獲編》(北京: 中華書局, 2015)을 저본으로 삼는다.

가 끝나면 큰 연회를 베푼다. 태후의 탄신일, 황후의 생신, 태자의 생일 마 다 장수면을 하사하는 것은, 또한 이러한 관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상께서 조회에 나오시는 일이 이미 드물어져 연회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매번 명절이 되어도 번번이 주상의 뜻을 받들어 연회를 거행하지 않았다. 비록 불필요한 경비를 다소 아낄 수는 있지만, 선조께서 남긴 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사월 초파일은 석가탄신일로 밀가루 음식을 하사했는데, 불락협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석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世宗께서는 불교를 배척하셨으므로, 음식을 하사하는 시기를 4월 5일로 바꾸고, 그 음식도 新麥麵으로 바꿨다. 불가에 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다 없애야 만족하신 듯하다. 예를 들어 大慈恩寺는 전대에 가장 번성했던 사찰인데, 憲宗·孝宗·武宗 대대로 법왕과 국사의 신분으로 머물렀던 자가 만 명이나 되었으며, 모두 천자의 주방인 御膳房에서 음식을 제공했다. 嘉靖 초에 음식 제공하는 일을 모두 없애고, 서역에서 온 승려들을 다른 곳으로 쫓아냈다. 가정 22년에 마침내 대자은사를 부슈버리라고 명을 내리니, 서까래 한 토막, 기와 한 조각도 남지 않았다. 지금의 활터가 대자은사가 있던 곳이다.

太祖<sup>8)</sup>時, 百官朝退, 必賜食<sup>9)</sup>于廷. 蓋用法雖嚴, 而馭臣有禮. 且其時每日賜對<sup>10)</sup>無間寒暑, 卽恤勞<sup>11)</sup>亦宜然.

至末年賜亦漸疎, 唯每月朔望日<sup>12)</sup>, 各衙門大小堂上官, 俱有支持酒饌, 歷文昭章<sup>13)</sup>三朝<sup>14)</sup>皆然. 直至正統<sup>15)</sup>七年, 光祿卿<sup>16)</sup>奈亨<sup>17)</sup>始奏罷之. 唯元旦冬至兩大

8) 太祖: 명대 國初 때의 일을 얘기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태조는 명대의 개국황제인 朱元璋 (1328-1398)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9) 賜食: 주로 황제가 신하에게 주연을 베푸는 것을 가리킨다.

10) 賜對: 왕이 신하를 만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

11) 恤勞: 근심하고 고생한다는 뜻이다.

12) 朔望日: 매월 초하루와 보름을 가리킨다.

13) 昭章: 분명하다, 뚜렷하다는 뜻이다.

14) 三朝: 다음 문장에 나오는 正統帝가 여섯 번째 왕이므로, 태조 이후의 永樂, 洪熙, 宣德 3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5) 正統: 정통(1436-1449)은 명대 여섯 번째 황제인 英宗 朱祁鎮이 등극한 이후에 사용한 연호로서 모두 14년간 사용했다.

節筵宴, 禮部奏請舉行. 其他如立春則吃春餅<sup>18)</sup>, 正月元夕吃元宵圓子<sup>19)</sup>, 四月八日吃不落夾<sup>20)</sup>, 五月端午吃糉子<sup>21)</sup>, 九月重陽吃糕, 臘月八日吃臘麪<sup>22)</sup>, 俱光祿先期上聞<sup>23)</sup>.

凡朝參官, 例得饜飫天恩, 亦太平宴衍<sup>24)</sup>景象也. 至若萬壽聖節, 郊祀慶成<sup>25)</sup>, 則有大燕. 太后聖誕, 皇后令誕, 太子千秋, 俱賜壽麪, 又不在此例. 近年主上御朝既稀, 筵宴頓減, 每遇令節, 輒奉旨免辦. 雖稍省浮費, 而祖制漸湮矣.

四月八日爲釋迦生日, 所賜亦麪食, 名不落夾者, 從釋氏名也. 世宗<sup>26)</sup>闢佛, 改賜

- 16) 光祿卿: 관직명으로 궁중의 음식을 전적으로 관장했다.
- 17) 奈亨: 明 順天府 香河 사람으로 자는 彥通이다. 燕王 朱棣가 起兵했을 때 北平(지금의 북경)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永樂 2년 修武縣의 縣丞에 제수되었다. 正統 초에 光祿寺卿이 되었고, 다시 戶部左侍郎에 올라 광록사의 일을 관장하였다. 고집불통이고 독선적인 관리였다.
- 18) 春餅: 立春에 고기와 야채를 써서 먹는 얇은 밀가루 전병을 말한다. 춘병을 먹는 기록은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에는 정월 초하루에 五辛(파, 부추, 달래, 마늘, 興渠)을 춘병에 써서 먹었다. 唐宋 이래로 춘병을 먹는 풍속이 입춘에 행해지고, 춘병에 싸먹는 재료도 각종 고기와 야채로 다양해진다. 명대 《燕都游覽志》에 있는 “입춘날에는 午門에서 백관들에게 춘병을 하사하였다(凡立春日, 于午門賜百官春餅)”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明代와 清代에 이르면 민간에서 뿐만 아니라 황제와 대관들까지도 입춘 당일 춘병을 먹을 정도로 보편적인 풍속이 되었다.
- 19) 元宵圓子: 정월 대보름에 먹는 소가 들어 있는 찹쌀가루로 만든 새알심 모양의 떡을 말한다.
- 20) 不落夾: 갈땃잎으로 찹쌀을 싸거나 오동나무 잎사귀에 밀가루를 얇게 펴 바른 뒤 말아 써서 만든 음식으로 사월 초파일에 불공을 드릴 때 썼으며, 조정에서도 백관에게 하사했다. 명대 劉若愚의 《酌中志·卷二十飲食好尚紀略》에 불락협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사월 초파일에는 불락협을 올렸다. 갈대 잎으로 찹쌀을 네모 모양으로 싸는데, 길이는 3-4촌, 넓이는 1촌 정도이며, 맛은 糉자와 같다.(四月初八日, 進不落夾, 用葦葉方包糯米, 長可三四寸, 闊一寸, 味與糉同也.)”고 했다. 또 청대 王棠의 《燕在閣知新錄·不落夾》에서는 “사월 팔일날 밀가루에 야채를 적당히 섞어 오동나무 잎 위에 얇게 펴 바르고 잎을 맞붙인 뒤 써서 먹는데 불락협이라고 한다(四月八日用白麵調蔬品攤柳葉上, 合葉蒸食, 名不落夾)”고 했다. 찹쌀을 넣은 불락협은 단오절에 먹는 糉자와 맛은 비슷하지만 모양이 네모이고 또 안에 넣는 소를 찹쌀 외에 밀가루를 쓰기도 했다는 점이 다르다.
- 21) 糉子: 단오절에 먹는 음식의 하나로, 찹쌀을 대나무 잎사귀나 갈땃잎에 싸서 삼각형으로 묶은 후 쪄낸 것이다.
- 22) 臘麪: 臘八麵이라고도 하며, 명대 궁중에서 12월 8일에 내린 국수다. 국수와 팔을 위주로 한 공류를 원료로 한 것인데, 물에 담가 두었던 팔을 끓여 익으면 거기에 부추 두께의 국수를 넣어 끓인다.
- 23) 上聞: 문서의 형태로 조정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 24) 宴衍: 연회를 베풀어 즐기는 것을 말한다.
- 25) 慶成: 옛날에 천자가 지내던 일반 제사나 하늘과 산천에 지내는 제사의 의례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 26) 世宗: 명대 제 11대 황제인 세종 朱厚熜(1507-1567)을 말한다. 주후총은 興獻王 朱祐杭의 아들로, 명 憲宗의 손자이자 孝宗의 조카이며, 武宗의 사촌동생이다. 재위 기간은 1521

期於四月五日, 其食亦改新麥麩, 蓋凡屬釋氏必盡廢爲快. 如大慈恩寺<sup>27)</sup>先朝最盛梵刹, 憲<sup>28)</sup>孝<sup>29)</sup>武<sup>30)</sup>歷朝, 法王國師居停者萬人, 皆仰給<sup>31)</sup>天庖<sup>32)</sup>. 嘉靖初盡革去, 驅衆番僧<sup>33)</sup>於他所. 至二十二年遂命毀之, 寸椽片瓦亦不存. 今射所是也.

### 3. 국초실록(國初實錄)

실록이란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唐 順宗의 실록은 韓昌黎가 초안한 것이라 지금까지 전해지긴 하나, 아주 상세하지는 않다. 宋代에 오면 실록이 매우 잘 갖춰진다. 《神宗實錄》은 처음에는 黃魯直과 張文潛 등이 집필했다. 紹聖 연간에 이르러 章惇과 蔡卞 등이 수정했는데, 초고를 다 수정본 안에 수록해 넣어서 그 흔적을 없앴으므로, 세상에 마침내 구판본이 없어졌다. 나중에 梁師成이 祕府에 있는 것을 전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퍼졌는데, 소위 朱墨本이 이것이다. 남쪽으로 천도한 후에는 章惇, 蔡卞 본이 날조됐다고 여겨 다시 수정할 것을 명했으므로, 《신종실록》은 모두 세 번 편찬되었다.

년-1566년이고, 연호가 嘉靖이라 嘉靖帝라고도 부른다. 가정제는 도교를 신봉하고 불교를 배척한 것으로 유명하다.

- 27) 大慈恩寺: 명대 초기 북경에 있던 대표적인 불교 사찰 중의 하나다. 대자은사는 원래 金代와 元代의 고찰로, 북경 什刹海 서북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명초에는 海印寺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宣德 4년에 重建하면서 이름을 대자은사로 바꿨다. 이 대자은사는 大隆善護國寺, 大能仁寺와 함께 명대의 유명한 북경 내 티베트 불교 사찰로, 북경에 머물던 티베트 승려들이 수행하던 곳이었다. 명 세종 가정 연간에 불교 배척 활동의 일환으로 대자은사를 허물었다.
- 28) 憲: 명 헌종 朱見深(1447-1487)을 말한다. 명대 제 8대 황제로, 英宗 朱祁鎮의 장자이다. 재위 기간은 1464년부터 1487년까지이고, 연호는 成化다.
- 29) 孝: 명 효종 朱祐樞(1470-1505)을 가리킨다. 명대 제 9대 황제로, 헌종 주견심의 셋째 아들이다. 재위 기간은 1487년부터 1505년까지이며, 연호는 弘治다.
- 30) 武: 명武帝 朱厚照(1491-1521)을 가리킨다. 명대 제 10대 황제로, 효종 주우맹의 장자이며, 재위 기간 동안의 연호는 正德이다.
- 31) 仰給: 남의 도움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 32) 天庖: 옛날 황제의 식사를 준비하던 주방, 즉 御膳房을 말한다.
- 33) 番僧: 서역에서 온 승려, 즉 라마승을 가리킨다. 명대 북경에 있던 서역 승려들은 직함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누었는데, 제일 낮은 1등급은 喇嘛, 2등급은 都綱, 3등급은 禪師, 4등급은 國師, 5등급은 大國師, 6등급은 西天佛子, 마지막 7등급은 大慈法王이었다.



현 왕조의 《太祖實錄》은 建文 연간에 편찬되었는데, 王景 등이 總裁였다. 永樂帝가 靖難의 변을 일으킨 뒤 曹國公 李景隆에게 다시 감수하도록 명했는데, 총재는 解縉이었으며, 옛 초본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그 뒤 永樂 9년에 또 완정하지 않다고 여겨 姚廣孝에게 감수하도록 다시 명하였고, 총재는 楊士奇였다. 지금 전하는 판본이 이것이다. 그런데 예전에 두 차례 편찬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開國 초기의 일은 변화가 많아서 송 신종 때와 전혀 다르지만, 그 史書를 세 번이나 고친 것은 역대로 이 두 시기에만 그렇게 했다. 이경용 등이 쓴 <進實錄表>를 내가 우연히 다른 책에서 발견해, 지금은 《태조실록》 뒤에 기록하여 첨부했다. 첫 번째 편찬과 두 번째 편찬 때에 양사기가 모두 纂修官이 되어 앞뒤로 세 번의 사서를 모두 집필했으니, 옳고 그름을 어찌 판단할 수 있었겠는가? 참으로 파렴치한 일이다.

實錄不甚經見<sup>34)</sup>. 唯唐順宗<sup>35)</sup>則韓昌黎<sup>36)</sup>所草, 故至今傳世, 然亦不甚詳. 至宋則備甚矣. 《神宗實錄》, 初爲黃魯直<sup>37)</sup>張文潛<sup>38)</sup>輩所修, 至紹聖<sup>39)</sup>而章<sup>40)</sup>蔡<sup>41)</sup>

34) 經見: 자주 본다는 뜻이다.

35) 唐順宗: 唐代 제 10대 황제인 李誦(761-806)을 가리킨다. 779년에 태자가 되어 805년 부친인 德宗이 붕어하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른다. 같은 해 8월에 태자 李純에게 선위하고 太上皇이 되었다가 다음해인 806년에 붕어한다. 순종과 그 시기에 관한 1차 기록으로 《順宗實錄》이 있는데, 총 5卷이며, 작자는 大文豪인 韓愈이고, 당대 실록 중 유일하게 散失되지 않았다.

36) 韓昌黎: 唐代的 대표적인 문장가이자 정치가 겸 사상가인 韓愈(768-824)를 가리킨다. 한 유는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자는 退之, 호는 昌黎이며 시호는 文公이다. 河南 河陽(지금의 河南省 孟州市) 사람이다.

37) 黃魯直: 北宋 시기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서예가인 黃庭堅(1045-1105)을 가리킨다. 황정견의 자는 魯直이고, 호는 山谷道人이며, 晩年에는 涪翁이라는 호를 사용했다. 洪州 分寧(지금의 江西省 九江市 修水縣) 사람이다. 문학 방면에서는 江西詩派의 시조이고, 서예 방면에서도 一家를 이룬 宋四家 중의 한 사람이다.

38) 張文潛: 張耒(1054-1114)를 가리킨다. 장희의 자는 文潛이고, 호는 柯山인데, 宛丘先生 또는 張右史라고도 불린다. 북송 시기의 관리이자 문학가이다. 神宗 때의 進士 출신으로 벼슬은 臨淮主簿, 著作郎, 史館檢討, 直龍閣知潤州, 太常少卿 등을 역임했다. 秦觀, 황정견, 晁補之 등과 더불어 蘇門四學士로 불린다. 저서에는 《柯山集》, 《宛邱集》 등이 있다.

39) 紹聖: 소성(1094-1098)은 송 哲宗 趙煦의 두 번째 연호다.

40) 章: 章惇(1035-1105)을 가리킨다. 장돈의 자는 子厚이고 호는 大滌翁이며, 浦城(지금의 福建省 南平市 浦城縣) 사람이다. 북송 중기의 정치가로 新舊黨爭의 주요 인물이다.

41) 蔡: 蔡卞(1048-1117)을 가리킨다. 채변의 자는 元度이고, 仙游(지금의 福建省 莆田 仙游

輩改之，盡收原稿入內，以減其跡，世間遂無舊本。後賴梁師成<sup>42)</sup>從祕府<sup>43)</sup>傳出，始行人間，所謂朱墨本者是也。至南渡後，以章蔡本爲誣罔<sup>44)</sup>，命再修，則《神宗實錄》凡三開局<sup>45)</sup>矣。

本朝《太祖實錄》<sup>46)</sup>修于建文<sup>47)</sup>中，王景<sup>48)</sup>等爲總裁<sup>49)</sup>，後文皇<sup>50)</sup>靖難<sup>51)</sup>，再命曹國公李景隆<sup>52)</sup>監修，而總裁則解縉<sup>53)</sup>，盡焚舊草，其後永樂<sup>54)</sup>九年復以爲未

縣) 사람이다. 북송의 정치가이자 서예가이며, 蔡京의 동생이자 王安石의 사위다. 채변은 장돈과 함께 《神宗實錄》의 재판찬 작업에 참여했다.

- 42) 梁師成: 양사성(?-1126)의 자는 守道이고, 開封 사람이다. 북송 말기의 환관으로, 채경, 童貫 등과 더불어 六賊으로 불린다.
- 43) 祕府: 고대에 궁중에 설치해 도서와 참위서 등을 보관하던 곳이다.
- 44) 誣罔: 속이다, 기만하다는 뜻이다.
- 45) 開局: 옛날 관부에서 책을 편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 또는 편찬 기구를 설립하기 시작할 때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을 말한다.
- 46) 太祖實錄: 명대의 《태조실록》은 명 태조와 건문제 두 황제의 사적을 기록한 역사서다. 《明史·藝文志》의 기록에 따르면 《명태조실록》은 총 257권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세 번 편찬되었는데, 첫 번째는 건문 元年(1399)에 董倫과 왕경 등이 총재를 맡았고, 두 번째 편찬은 영락 초기에 이경용과 茹瑺이 감수를 맡고 解縉이 총재를 맡았으며, 세 번째 편찬은 영락 9년(1411)에 姚廣孝와 夏原吉이 감수를 맡고 楊寓, 胡廣 등이 총재를 맡아 영락 16년(1418)에 완성했다. 永樂帝는 《태조실록》을 두 차례 수정하면서, 태조의 과실과 자신에 대한 建文帝 때 유신들의 비난을 삭제하고, 정난의 공을 칭송하도록 했다. 萬曆 연간에 科臣 楊天民의 청을 받아들여 건문 원년에서 3년까지의 事迹을 《태조실록》 뒤쪽에 덧붙였다.
- 47) 建文: 건문은 명대 두 번째 황제인 惠宗 朱允炆의 연호로 1399년에서 1402년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 48) 王景: 왕경(1337-1408)의 자는 景彰이고 호는 常齋이며, 松陽縣(지금의 浙江省 遂昌縣) 사람이다. 《太祖高皇帝實錄》 즉 《태조실록》과 《永樂大典》의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 49) 總裁: 관직명으로, 명대와 청대 중앙편찬기구의 책임자를 말한다.
- 50) 文皇: 문황은 명대 제 3대 황제인 成祖 朱棣(1360-1424)를 가리킨다. 주체는 처음에 燕王에 봉해졌는데, 태조가 죽고 건문제가 즉위한 뒤 정난의 변을 일으켜 건문제를 몰아내고 1402년에 등극했다. 연호를 영락이라 하였으므로 영락제라고도 부른다.
- 51) 靖難: 靖難之役 혹은 靖難之變이라고 부른다. 건문제 원년(1399) 8월 6일에 발생하여 4년간 지속되었다. 태조의 손자였던 건문제는 제위에 오른 뒤 대신인 齊泰, 黃子澄 등과 함께 藩王의 세력을 점차 약화시키기 시작했다. 이것에 불만을 품고서 명 태조의 네 번째 아들 燕王 朱棣가 병사를 일으켜 남경을 침공하고 제위를 건문제로부터 탈취했다.
- 52) 李景隆: 이경용(생졸년 미상)의 아명은 九江이고, 盱眙(지금의 江蘇省 盱眙) 사람이다. 태조 朱元璋의 생질인 曹國公 李文忠의 아들로, 젊은 시절에 그 부친의 작위를 세습 받아 조국공이 되었다. 정난의 변 때는 건문제의 장군으로서 여러 차례 연왕 주체에게 패했다. 주체가 남하하자 이경용과 谷王 朱穗가 金川門을 열고 주체에게 투항했다.
- 53) 解縉: 해진(1369-1415)의 자는 大紳으로 縉紳이라고도 하며, 호는 春雨 또는 喜易이다. 吉水(지금의 江西省 吉水) 사람으로 洪武 21년(1388) 진사다. 관직은 內閣首輔에까지 이르렀다. 저서로는 《解學士集》, 《天潢玉牒》 등이 있으며, 《태조실록》과 《古今列女傳》의 총재였고, 《永樂大典》의 편찬을 주관했다.
- 54) 永樂: 영락은 명대 제 3대 황제인 성조 주체의 연호다. 이 연호는 1403년부터 1424년까지

善, 更命姚廣孝<sup>55)</sup>監修, 總裁則楊士奇<sup>56)</sup>, 今所傳本是也. 然前兩番所修, 則不及見矣. 國初時事變革, 與宋神宗絕不同, 然三更其史, 則古來唯兩朝爲然. 李景隆等 <進錄表><sup>57)</sup>, 予偶從他書得之, 今錄附《太祖實錄》之後. 初修再修時, 楊文貞俱爲纂修官<sup>58)</sup>, 則前後三史, 皆曾握管<sup>59)</sup>, 是非何所取裁. 真是厚顏.

#### 4. 실록을 감수하다(監修實錄)

實錄監修官은 대대로 모두 훈신들로 채워졌다. 洪武 31년 8월에 建文帝가 새로 즉위해서 江西 處士 楊士奇를 불러 實錄纂修官에 임명했다. 건문 원년 정월에 처음 《太祖實錄》 편찬을 대대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總裁는 禮部侍郎 董倫과 王景彰이었고, 副總裁는 太常少卿 廖升과 侍講學士 高巽志였으며, 찬수관은 國子博士 王紳, 漢中府 教授 胡子昭, 齊府副理審 楊士奇, 崇仁縣訓導 羅恢, 馬龍他郎甸長官司의 吏目인 程本立이었는데, 감수자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홍무 35년 7월은 실제로는 건문 4년으로, 永樂帝가 새로 즉위했다. 예전에 知府였던 葉惠仲 등이 《태조실록》을 편찬할 때 靖難의 변을 일으킨 군신들을 역모의 무리라고 지탄했다가 사형에 처해지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같은 해

지 총 22년간 사용되었다.

- 55) 姚廣孝: 요광효(1335-1418)는 명대의 정치가이자 불교학자다. 그의 자는 斯道와 獨闇이고, 호는 獨庵老人과 逃虛子이며, 법명은 道衍이다. 정난의 변을 성공으로 이끈 중심인물이다. 정난의 변이 성공해 연왕 주제가 황제로 등극한 뒤, 요광효는 僧錄司左善世 겸 太子小師를 맡아 黑衣宰相이라 불렸다.
- 56) 楊士奇: 양사기(1366-1444)는 명대의 대신이자 학자다. 그의 이름은 寓이고, 자는 士奇, 호는 東里이며, 시호는 文貞이다. 주로 楊寓라는 이름보다는 양사기라는 자로 불렸다. 江西 泰和(지금의 江西省 吉安市 泰和縣 澄江鎮) 사람이다. 관직이 禮部侍郎 겸 華蓋殿大學士 겸 兵部尙書에 이르렀다. 건문제부터 成祖, 仁宗, 宣宗, 英宗에 이르기까지 5대를 거치며 40여 년 동안 내각에서 대신으로 지내면서 21년간 재상을 지냈다. 《태조실록》, 《仁宗實錄》, 《宣宗實錄》의 총재를 맡았다. 楊榮, 楊溥와 함께 정치를 보좌하여 '三楊'으로 같이 불린다.
- 57) 進錄表: 進實錄表를 말한다. 실록이 정식으로 완성된 뒤, 책의 앞머리에 두어 편찬에 참여한 여러 신하들의 이름과 편찬 범례 등을 밝힌 것이다.
- 58) 纂修官: 사서를 편집하고 편찬하는 일을 하는 사관이다.
- 59) 握管: 집필한다는 뜻이다.

12월에 비로소 다시 편찬하도록 명이 내려졌다. 그 때 감수자는 曹國公 李景隆, 忠誠伯 茹瑺으로, 文官과 武官이 각각 한 명씩이었는데 모두 훈신이었다. 영락 9년에 또 이경응과 여상 등의 성품이 바르지 못하고 편집이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姚廣孝와 夏原吉을 감수관으로 바꿔 임명하고, 찬수관으로는 胡廣 등을 위촉했다. 그리고 양사기와 金幼孜에게 그들을 보좌하도록 명하고, 총재로는 祭酒 胡儼, 學士 黃淮과 楊榮을 위촉했다. 이것은 국가의 초기에 아직 관례가 정해지지 않아서이다.

洪熙 원년 5월에 《태조실록》을 편찬했는데 英國公 張輔, 吏部尙書 蹇義, 戶部尙書 夏原吉이 감수관이 되었으니 무신 한 명에 문신 두 명이었고, 총재는 양사기 등이었다. 그 해 윤 7월에 또 《仁宗實錄》을 편찬했는데 여전히 영국공 장보, 成山候의 王通과 건의, 하원길 네 명이 모두 감수관이 되었다. 대체로 문신과 무신이 각 두 명씩이었고 찬수관은 여전히 양사기 등이었다.

宣德 10년에 《宣宗實錄》을 편찬했는데 처음으로 영국공 장보 한 사람이 감수관을 맡도록 명했고 그 총재는 여전히 輔臣 양사기 등을 위촉했다. 이때부터 대대로 마침내 정해진 제도가 되어, 더 이상은 문신이 감수하는 일이 없었다. 다만 嘉靖 연간에는 《興獻錄》을 편찬했는데 定國公 徐光祚, 이부상서 廖紀, 禮部尙書 席書가 감수관이 되었다. 대체로 국초의 옛일을 가지고 그 책을 다시 썼다. 책이 완성되자 각각 주상의 상을 받았다. 그런데 실록은 이미 주체 넘게 함부로 비교하는 부류가 되어 역대 황제들을 더 미화시키고자 했으니 식자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 중요하게 여기기에는 부족하다.

實錄監修官<sup>60</sup>, 累朝俱以勳臣<sup>61</sup>充之. 惟洪武<sup>62</sup>三十一年八月建文君<sup>63</sup>新即位,

60) 監修官: 監修國史를 말하며 조정의 사서 편찬기구를 주관하고 사서 편찬활동을 하는 관원이다.

61) 勳臣: 勳은 勳의 古字로, 공을 세운 신하를 말한다.

62) 洪武: 홍무는 명 태조 朱元璋의 연호로 명대 최초의 연호다. 명대의 연호는 제정 절차상 일반적으로 翰林 儒臣이 먼저 몇 가지 방안을 정하고 새로운 군주에게 올려서 그중 하나를 선택해 연호로 삼게 했다. 홍무는 예외적으로 주원장 자신이 직접 만들었으며, 국초에 군사적인 위세를 드높이고 호걸의 기운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63) 建文君: (1377-?) 명조 제2대 황제이다. 1398년부터 1402년까지 재위했으며 연호가 건

徵江西處士<sup>64</sup>)楊士奇充實錄纂修官, 建文元年正月始大開局修《太祖實錄》, 時總裁爲禮部侍郎<sup>65</sup>)董倫<sup>66</sup>), 王景彰<sup>67</sup>), 副總裁爲太常少卿<sup>68</sup>)廖升<sup>69</sup>), 侍講學士<sup>70</sup>)高巽志<sup>71</sup>), 纂修官爲國子<sup>72</sup>)博士<sup>73</sup>)王仲<sup>74</sup>), 漢中府<sup>75</sup>)教授<sup>76</sup>)胡子昭<sup>77</sup>), 齊府副

문이어서 후대에 건문제라고 칭해진다. 朱允文, 朱允汶으로도 쓴다.

- 64) 江西處士: 江西는 春秋戰國시기에 吳, 越, 楚 세 나라가 분쟁하던 곳이다. 명대는 기본적으로 원대의 省의 구획을 따랐으며, 명대의 강서지역은 지금의 江西省 지역과 같다. 處士는 고대에 덕과 재주가 있지만 은거하면서 관직에 나서지 않았던 사람을 말한다.
- 65) 禮部侍郎: 예부는 六部의 하나로 나라의 전장제도나 전례, 제사, 학교, 과거, 빈객접대 등을 담당한 기관이다. 예부의 장관은 禮部尙書이고, 예부시랑은 예부상서의 부관으로 예부의 차관이다. 명대에는 正3품이었다.
- 66) 董倫: 동륜(1324-1403)의 자는 安常이고 명대 恩縣 董家堂村(지금의 武城縣 武城鎮 蔣王莊) 사람이다. 元 泰定 연간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詩書를 매우 좋아하여 經史子集을 두루 섭렵했다. 洪武 15년(1383) 張以寧의 추천으로 南京에 가 右贊善大夫로 임직했다. 건문제에 황위를 계승한 뒤, 동륜은 禮部侍郎 겸 翰林學士가 되어 황제에게 經, 史, 鑒 등을 강의하고 《태조실록》의 편찬을 주관했다.
- 67) 王景彰: 王景을 가리킨다. 각주 48) 참조.
- 68) 太常少卿: 관직명이다. 北魏 때 처음으로 설치됐고, 北齊 때는 太常寺少卿으로 불렸다. 太常寺의 차관이다. 종묘에 제사지낼 때 太祝과 齋郎을 거느리고서 香燭을 안배하고 神座와 幕帳을 정리해 神主를 迎送하는 일을 맡았다.
- 69) 廖升: 요승(?-1402)은 명대의 관원이며 襄陽사람이다. 박학하고 사서 편찬의 능력이 뛰어나며, 당시 명사인 方孝孺, 王紳 등과 깊이 교류하였다. 洪武 29년(1396) 6월에 太常少卿이 되었고, 건문 원년(1399)에 칙명을 받아 《태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는데 高遜志와 함께 副總裁官으로 임명되었다. 燕王 朱棣가 南下하여 왕위를 빼앗자 자결했다고 전해진다.
- 70) 侍講學士: 명칭 시기 중앙정부의 관직 중 하나이다. 명대에는 품계가 5품이었고 청대에는 4품이었다. 이 관직은 주로 內閣이나 翰林院에 배치되었으며 주요 임무는 文史를 편찬하고 검토하는 일이다. 1912년에 청이 멸망한 뒤에 폐지됐다.
- 71) 高巽志: 高遜志를 가리키며 원나라 때의 인물이다. 浙江 蕭縣사람이고 자는 士敏이며 嘉興에 살았다. 생졸연대는 불분명하고 대략 명 태조 홍무 중기 전후에 살았던 것 같다. 태조 때에 원나라 역사를 편찬하도록 부름 받아 翰林에 들어갔으며 여러 해 동안 吏部侍郎을 지냈다. 건문 초에는 太常少卿에 임명되어 董倫과 함께 會試를 주관하고 王良, 胡靖 등과 함께 名臣으로 불렸다. 靖難 이후에 雁蕩山에 은둔해 살다가 죽었다.
- 72) 國子: 國子是 명칭 시기의 國子監을 말한다. 국자는 본래 國子學으로 중국 고대의 교육 관리 기관이자 최고의 학부이다. 晉武帝 鹹寧 2년(276)에 처음으로 설치됐고 太學과 병립했다. 명칭 시기에는 교육관리기구이자 국자학의 성격을 겸했다.
- 73) 博士: 고대 관직명이다. 秦漢시대에는 서적과 문건을 관리하고, 역사적인 사실에 통달한 관직을 맡았다. 나중에는 학술적으로 하나의 학문에 정통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중사하는 관직을 가리키게 되었다. 예를 들면 명대 초 朱允汶은 方孝孺를 '文學博士'로 임명한 바 있다.
- 74) 王仲: 沈德符 撰, 《萬曆野獲編》(中華書局, 2015)과 沈德符 撰, 楊萬里 校點, 《萬曆野獲編》(上海古籍出版社, 2012)의 원문에서는 '王仲漢'을 人名으로 간주하고 '中府教授胡子昭'로 교집하고 있다. 하지만, 명대 姜淸의 《姜氏秘史》 卷二, 청대 張廷玉의 《明史·五十》, 청대 張廷玉의 《御定資治通鑑綱目三編》 卷四에 있는 건문 원년 《태조실록》 편찬

理審<sup>78)</sup>楊士奇, 崇仁縣訓導<sup>79)</sup>羅恢<sup>80)</sup>, 馬龍他郎甸長官司<sup>81)</sup>吏目<sup>82)</sup>程本立<sup>83)</sup>, 而監修者則未之聞.

至洪武三十五年七月, 實建文四年也, 文皇新即位, 以前任知府<sup>84)</sup>葉仲惠<sup>85)</sup>等修

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다른 찬수관의 이름은 동일한데 세 책 모두 '왕중환'이라는 인명 대신 王紳이라는 인명이 등장한다. 《명사》는 국가 주도의 역사서이므로 인명의 誤記 가능성이 적고, 《만력야획편》보다 이른 시기의 책인 《강씨비사》에서도 왕신으로 적고 있으므로, 仲과 紳이 비슷하게 보여 심덕부가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胡子昭가 方孝孺를 스승으로 모시고 漢中府에서 강학했던 사실을 미루어 보면 '한중부 교수 호자소'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화서국본 《만력야획편》의 글자와 교집에 따르지 않고 '王仲漢, 中府教授胡子昭'를 '王紳, 漢中府教授胡子昭'로 보고 번역한다. ○ 王紳(1360-1400)은 명 태조와 건문제 때의 유명한 시인으로, 자는 仲紳이고 浙江 義烏 사람이다. 홍무 24년 蜀獻王의 초빙을 받아 成都府 文學이 되었다. 건문제 때 국자박사가 되어 《태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 75) 漢中府: 陝西省 서남부에 위치한다. 元代에는 이곳에 興元路를 설치했었으나, 명 태조 홍무 3년(1370)에 漢中府로 바꾸었다.
- 76) 教授: 명대 관직명으로 주로 교육과 행정부문을 담당했다.
- 77) 胡子昭: 호자소(?-1402)의 자는 仲常이고 初名은 志高이다. 四川 榮縣 사람이다. 蜀獻王의 추천으로 榮縣訓導가 되었으며, 方孝孺가 漢中教授를 맡고 있을 때 漢中府로 가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면서, 방효유를 따라 함께 한중부에서 강의했다. 건문 初에 《태조실록》의 편찬 작업에 참여했으며, 관직은 刑部侍郎까지 지냈다.
- 78) 理審: 명대에는 황제의 직계 아들들을 親王으로 봉하고 그들이 사는 곳을 親王府라고 했다. 그리고 親王府마다 법을 심리하고 형을 판단하는 審理官을 두었는데 이를 理審이라고 한다.
- 79) 訓導: 명대에 府 이하의 행정단위에 설치되어 그 지역 秀才의 학업과 성적을 고찰하던 교육 관원이다.
- 80) 羅恢: 생졸년은 未詳이다. 吉安 사람으로 영락제 때 국자감박사를 지냈으며, 《태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 81) 馬龍他郎甸長官司: 오늘날의 雲南省 玉溪市 新平縣과 옛 新化州(지금의 新平縣 新化鄉)의 長官司機構로 元江軍民府土司의 관할에 예속되어 있었다. 명대 홍무 연간에 운남 지역을 평정한 뒤 세워졌으며, 명대 장관사의 품계는 正六品이었다.
- 82) 吏目: 중국 고대 문관의 관직명이다. 원대의 많은 提學司와 명·청대 太醫院, 五城兵馬司 및 명대 太常寺, 鹽課提舉司, 市舶提舉司, 京衛指揮使司 등에서 이목을 두어 문서를 관장하게 했다.
- 83) 程本立: (?-1402), 자는 原道이고 호는 巽隱이다. 명초 浙江 崇德(지금의 절강 桐鄉) 사람이며, 송대 유생인 程顥의 후손이다. 홍무 20년 봄에 周王府長史에 임명되었으나, 홍무 22년(1389) 周王이 藩國을 버리고 鳳陽으로 간 사건에 연루되어 雲南의 馬龍他郎甸長官司 吏目으로 폄적되었다.
- 84) 知府: 地方職의 관명이다. 太守라고도 하며, 州府의 최고 行政長官이다.
- 85) 葉仲惠: 葉惠仲(1340-1403)으로 추정된다. 淸 譚瑩의 《嶺南遺書》에 기록된 홍무 31년(1398) 《太祖實錄》 편찬 참여자 명단에 葉仲惠이 아닌 葉惠仲로 기록되어 있다. 또 《明史·列傳第三十一》에 “葉惠仲, 臨海人. 與兄夷仲並有文名, 以知縣徵修《太祖實錄》, 遷知南昌府. 永樂元年, 坐直書靖難事, 族誅.”라고 되어 있어 섭재중이 《太祖實錄》 편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淸 張廷玉의 《御定資治通鑑綱目三編》 卷四에도 “以建文中所修爲失

《太祖錄》<sup>86)</sup>指斥靖難君臣爲逆黨, 論死<sup>87)</sup>籍沒<sup>88)</sup>, 本年十二月始命重修. 其時監修者爲曹國公<sup>89)</sup>李景隆忠誠伯<sup>90)</sup>茹瑺<sup>91)</sup>, 雖文武各一人, 皆勳臣也. 永樂九年, 又以景隆, 瑺等心術不正, 編輯不精, 改命姚廣孝, 夏原吉<sup>92)</sup>爲監修, 其纂修則屬之胡廣<sup>93)</sup>等. 又命楊士奇, 金幼孜<sup>94)</sup>佐之, 而總裁則屬祭酒<sup>95)</sup>胡儼<sup>96)</sup>, 學士黃淮<sup>97)</sup>楊

實乃重修之命李景隆茹瑺監修, 前纂修官南昌知府葉惠仲以直書燕起兵事族誅, 質實年本朝乾隆四十一, 追諡葉惠仲節愍.”라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심덕부가 誤記했거나 전해지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葉惠仲의 이름은 見恭이고 浙江省 臺州府 臨海縣(지금의 浙江省 臨海市) 사람으로 명대의 정치인이다. 형인 葉惠仲과 함께 문장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知縣의 신분으로 《태조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후에 南昌知府로 승진했으나 영락 元年에 靖難의 변을 사실 그대로 썼다는 죄명으로 滅族 당했다.

- 86) 太祖錄: 《明太祖實錄》을 말한다. 각주 46) 참조.
- 87) 論死: 사형을 구형하다. 사형에 처한다는 의미이다.
- 88) 籍沒: 재산을 몰수하다는 뜻이다.
- 89) 曹國公: 명 태조 朱元璋은 洪武 1년(1369)에 李文忠을 曹國公으로 봉했고, 후에 李文忠의 아들인 李景隆이 아버지의 작위를 세습해 조국공이 되었다. 영락 2년(1404)에 성조가 작위를 없애면서 세습도 중단됐다.
- 90) 忠誠伯: 작위의 이름으로, 명대에 공을 세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내렸다.
- 91) 茹瑺: 자는 良玉이고 호는 茹庵이다. 元 至正 18년(1358) 12월 초하룻날 衡山 東隅의 藻江(지금의 衡東縣 石灣鄉 棗山村)에서 태어났다. 명 홍무 17년(1377)에 여상은 국자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고 태조 주원장의 신임을 받아 홍무 23년에는 太子少保에 봉해진다. 건문 4년(1402)에 燕兵이 京城을 격파하자 연왕 주체는 여상을 불렀고 여상은 주체에게 망위에 오를 것을 최초로 권유했다.
- 92) 夏原吉: 하원길(1367-1430)은 명초의 중신으로, 자는 維喆이고 湖南省 湘陰 사람이며 본적은 德興이다. 그는 건문 시기에 戶部右侍郎에 임명됐으며, 후에는 采訪使에 위촉됐다. 청렴하게 정치해서 백성들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다. 명 성조가 즉위한 뒤 하원길을 중임해, 蹇義와 더불어 세상에서 칭송받았다.
- 93) 胡廣: 호광(1370-1418)은 명대의 대신이자 書法家로, 자는 光大이고 吉水사람이다. 건문 연간에 庚辰科에서 狀元을 하고 영락 5년에 翰林學士 겸 左春坊大學士를 지냈으며, 영락 14년에 文淵閣大學士로 들어갔다. 칙명을 받아 《五經四書大全》을 편찬했고 《胡文穆集》도 지었다. 호광은 영락 16년 5월에 49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사후에 禮部尙書의 관직이 내려졌고 시호는 文穆이다.
- 94) 金幼孜: 김유자(1367-1431)의 이름은 善이고, 호는 退庵인데, 이름보다는 자인 幼孜로 더 알려져 있다. 江西 新淦 洮山(지금의 江西省 峽江縣 羅田鎮)사람이다. 건문 2년에 進士가 되었고 戶科給事中에 임명됐다. 성조가 즉위하고 나서는 翰林檢討를 맡아 解縉 등과 함께 文淵閣에서 일하고 侍講이 되었다. 당시에 翰林坊局에서는 신하들이 東宮에게 사서를 강의했는데, 해진은 《書》를, 楊士奇는 《易》을, 胡廣은 《詩》를, 金幼孜는 《春秋》를 강의했다.
- 95) 祭酒: 관직명에 쓰이는 호칭으로 책임자, 주관자를 가리킨다. 관직명 뒤에 祭酒를 붙이면 그 부문의 책임자를 뜻한다. 漢代에는 博士祭酒가 있었는데 박사들의 최고 책임자를 말했다. 西晉 시기의 國子祭酒는 國子學의 책임자였으며, 隋唐 이후로는 國子監祭酒라고 불렀는데 국자감의 책임자를 말했다. 清末에 폐지됐다.
- 96) 胡儼: 호엄(1361-1443)의 자는 若思, 호는 頤庵이며, 南昌 사람이다. 홍무 20년에 舉人에 합격해 華亭(지금의 甘肅 平涼) 教諭를 하사받고 이때부터 관직에 나가게 된다. 知縣, 翰林

榮<sup>98</sup>), 此國初未定例也.

洪熙<sup>99</sup>元年五月, 修《太宗實錄》<sup>100</sup>, 以英國公<sup>101</sup>張輔<sup>102</sup>吏部尚書蹇義<sup>103</sup>戶部尚書夏原吉爲監修, 則武臣一人, 文臣二人矣, 而總裁則楊士奇等. 本年閏七月, 又修《仁宗實錄》<sup>104</sup>, 仍以英國公張輔通山侯王道<sup>105</sup>及蹇<sup>106</sup>夏<sup>107</sup>共四人爲監

院檢討, 侍講, 左庶子, 國子監祭酒 등의 관직을 역임한다. 교육자이자 문학가여서 《頤庵集》 30권을 지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頤庵文選》 2권뿐이다.

- 97) 黃淮(지금의 溫州市 鹿城區) 사람이다. 명대 武英殿의 大學士이다. 자는 宗豫, 호는 介庵이며, 浙江 永嘉(지금의 溫州市 鹿城區) 사람이다. 명대 내각 초창기의 중신으로, 태조, 惠帝, 成祖, 仁宗, 宣宗의 5대를 모셨다. 황희는 저술이 풍부해 《黃文簡公介庵集》 11권(《退直稿》 3권, 《歸田稿》 6권, 《入覲稿》 2권을 포함)과 《省愆集》 상하 2권 등이 전해진다.
- 98) 楊榮(1371-1440)은 명대 福建 建安(지금의 建甌) 사람이다. 初名은 子榮이고 자는 勉仁이다. 건문 연간에 진사가 되어 編修를 임명받았으며 관직이 文淵閣大學士까지 올랐다. 仁宗이 즉위한 뒤 謹身殿大學士와 工部尚書를 지냈다. 正統 5년(1440)에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객사했다. 시호는 文敏이다. 저서로는 《後北征記》, 《楊文敏集》 등이 있다.
- 99) 洪熙: 명대 제 4대 황제인 仁宗 朱高熾(1378-1425)의 연호이다. 인종은 영락 22년(1424) 8월에 즉위한 뒤 다음 해(1425)를 홍희 원년으로 정했는데, 홍희 원년 5월에 病死하여 재위 기간은 채 1년이 안 된다. 따라서 홍희라는 연호는 1425년 1년간만 사용되었다.
- 100) 太宗實錄: 《明實錄》의 일부로 《明太宗實錄》이며, 130권이다. 《명실록》은 명대 역대 관에서 편찬한 편년체의 역사서로, 명 태조 주원장부터 명 熹宗 朱大量까지의 자료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학적 가치를 지닌다.
- 101) 英國公: 중국 고대의 작위로 北周 때에 처음으로 설립됐다. 본래는 황실의 작위로 王의 작위보다 낮았다. 隋代에 공신을 국공으로 봉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국공은 대신과 태평 시기의 최고의 작위가 되었다. 唐制에 따르면 郡王과 國公은 모두 從一品이다. 국공은 명대에 최고의 세습 작위였고, 봉해지는 지역에 따라서, 英國公, 定國公, 曹國公 등으로 불렸다. 영국공은 명 성조 주체가 정난 시기에 활약했던 명장 張玉을 임명한 것이 최초였다.
- 102) 張輔(1375-1449)는 명대의 명장이다. 자는 文弼이고, 祥符(지금의 河南 開封縣) 사람이다. 영락 4년(1406) 중국과 安南(지금의 베트남)간에 교전이 일어나자 영락제가 군대를 일으켜 안남을 쳤다. 장보는 이 전쟁을 지휘해 안남을 정복하고 郡縣으로 삼았다. 장보는 안남을 10년간 통치하면서 여러 차례 반란을 진압했다. 장보의 뛰어난 전술과 전략으로 명은 안남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 103) 蹇義: 건의(1364-1435)의 자는 宜之이고 명나라 대신이다. 洪武 18년(1385) 進士 출신이며, 中書舍人, 吏部右侍郎, 吏部尚書, 輔太子監國 등의 벼슬을 지냈다.
- 104) 仁宗實錄: 《明實錄》의 일부로 《明仁宗實錄》이며, 10권이다.
- 105) 通山侯王道: 成山侯 王通의 오기로 보인다. 《大明宣宗章皇帝實錄卷之五》와 명대 黃虞稷의 《千頃堂書目·卷四·國史類》에 기록에 따르면 《仁宗實錄》 편찬 때의 감수관은 英國公 張輔, 小師吏部尚書 蹇義, 少保 檢太子少傅 戶部尚書 夏原吉, 太子太保 成山侯 王通 네 사람이다. 왕통(?-1452)은 陝西 西安府 咸寧縣(지금의 陝西省 西安市) 사람으로, 명대의 장군이다. 자는 彥亨이다. 정난의 변 때부터 영락제를 도와 많은 공을 세워 영락 11년 成山侯에 봉해진다. 홍희 연간에 太子太保가 되고, 宣德 연간에 베트남 후례(後黎) 왕조의 초대 황제인 레리이(黎利)와의 전쟁에서 여러 차례 패하면서 작위가 박탈되고



修. 蓋文武各二人, 而纂修亦仍士奇等.

至宣德<sup>108</sup>)十年修《宣宗實錄》<sup>109</sup>), 始命以英國公張輔一人充監修官, 其總裁仍屬輔臣楊士奇等. 自此累朝以來遂爲定制, 無復文臣監修事矣. 唯嘉靖<sup>110</sup>)間修《興獻錄》<sup>111</sup>), 以定國公徐光祚<sup>112</sup>)吏部尙書<sup>113</sup>)廖紀<sup>114</sup>)禮部尙書<sup>115</sup>)席書<sup>116</sup>)爲監修官, 蓋用祖宗初年故事, 以重其典. 書成, 各受上賞. 然實錄已屬僭擬<sup>117</sup>), 卽欲加隆於列聖之上, 徒爲識者所哂, 無足爲輕重也.

평민으로 강등되었다. 代宗 景泰 초에 都督僉事로 다시 기용되어 공을 세우면서 재산을 반환받고, 경태 3년(1452)에 사망한다.

106) 蹇: 蹇義를 가리킨다. 각주 103) 참조.

107) 夏: 夏原吉을 가리킨다. 각주 92) 참조.

108) 宣德: 명 宣宗 朱瞻基(1398-1435)의 연호이다. 선종은 명 제5대 황제로, 仁宗 朱高熾의 첫째 아들이다.

109) 宣宗實錄: 《明實錄》의 일부로 《明宣宗實錄》이며, 115권이다.

110) 嘉靖: 명 11대 황제인 明 世宗 朱厚熜(1507-1567)의 연호이다.

111) 興獻錄: 명 세종이 가장 연간에 편찬한 아버지 흥헌왕에 대한 기록으로 원명은 《獻皇帝實錄》이며 소실되었다. 흥헌왕은 朱祐杭(1476-1519)으로 명 憲宗의 네 번째 아들이다. 명 세종의 아버지이며, 명 효종의 이복동생이다. 어머니는 邵宸妃이고 처는 蔣氏이다. 처음에는 ‘獻’으로 시호를 썼다.

112) 徐光祚: 서광조(?-1526)는 명대의 장군이자 定國公으로 徐永寧의 손자이다. 弘治 17년(1504) 定國公의 작위를 세습하고 2500石의 녹을 받았다.

113) 吏部尙書: 중국 고대의 관명이다. 전국 관리들의 임명과 면직, 시험과 과업, 승진과 탈락, 封勳 등의 일을 관리했다. 吏部 최고의 長官으로 중앙 6부의 상서 중 우두머리이다. 명대에는 正2品이었다. 일반적으로 天官, 塚宰, 太宰로 불린다.

114) 廖紀: 요기(1455-1532)의 자는 廷陳이고 호는 龍灣이다. 민간에서는 廖天官으로 불린다. 北直隸河間府 東光縣(지금의 河北省 東光縣) 사람이다. 명대의 걸출한 정치가이자 유학자로, 少保 겸 太子太保, 吏部尙書를 지냈다. 海南 역사상 조정의 중앙기구에 들어간 重臣들 중 하나이며, 海南의 ‘十大廉吏’ 중 하나로 불린다.

115) 禮部尙書: 조정의 禮儀, 제사, 연회, 학교, 科擧와 대외활동을 주관하는 대신으로 지금의 의교, 교육, 문화장관에 해당한다.

116) 席書: 석서(1461-1527)의 자는 文同이고 호는 元山이다. 명대의 학자이자 관원으로, 四川 潼川州 遂寧縣 吉祥鄉(지금의 遂寧市 蓬溪縣 吉祥鎮) 사람이다. 天順 5년(1461)에 태어나, 弘治 원년(1488)에 舉人이 되고, 弘治 3년(1490)에 진사가 됐으며, 山東 郟縣(지금의 山東省 郟城縣의 북쪽) 知縣으로 봉직했다. 正德 연간에 河南按察司僉事, 貴州提學副使, 右副僉都禦史를 지내면서 湖廣지역을 순수했다. 세종 때에 예부상서가 되었고 가정 6년(1527) 武英殿 大學士에 임명되었다. 사후 太傅로 명예졌고, 시호는 文襄이다. 저작으로는 《大禮集議》 등이 있다.

117) 僭擬: 주제님께 멋대로 비교하는 것이다.

## 5. 피휘(避諱)

예로부터 제왕의 피휘는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唐 玄宗은 隆자와 基자를 피휘해 劉知幾가 이름을 바꿨다. 宋 欽宗은 桓자를 피휘해 이름에 丸자를 쓰는 것조차 싫어해 피했으므로 과거 시험장에서 韻脚에 '丸'자를 쓰면 모두 쫓겨나가거나 떨어졌다. 高宗은 構자를 피휘했으니 勾자까지도 피휘하여 '句龍氏'를 '緱氏'로 고치게 되었다. 대체로 같은 음이면 피해야 했고 신하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 현 왕조에서는 이러한 금기가 조금 느슨해지긴 했지만 매우 특이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懿文太子라는 시호가 이미 있었는데도 어째서 어린 황제를 여전히 이름을 允炆이라 불렀는가? 당시에 이미 의문태자를 興宗 康皇帝라고 존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建文이라는 年號는 允炆이라는 황제의 이름과 음이 같은데도 온 조정에서 그렇게 4년간 불렀다. 어째서 조금도 피휘하지 않았을까? 건문제의 두 아들 중 첫째는 이름이 文奎이고 둘째도 文圭인데, 그 음이 건문제 이름의 '炆'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어찌 태조가 정해놓은 황실의 계보에서 전해지는 스무 글자에 구애받았는가? 응당 바뀔 통용해야 했을 것이다. 당시에는 方孝孺, 黃子澄과 같은 대유들이 관직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혼란한 국면을 수습하고 문치와 교화에 힘썼는데 어째서 이 일은 논의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章자가 들어가는 시호는 太祖의 御諱를 범하기까지 했으니 더욱 기이하다.

古來帝王避諱甚嚴。如唐玄宗<sup>118</sup>諱隆基，則劉知幾<sup>119</sup>改名。宋欽宗諱桓，則並

118) 唐玄宗: 당나라의 제6대 황제 李隆基(685-762)를 말하며, 재위기간은 712년부터 756년까지이다. 안으로는 민생안정을 피하고 경제를 충실히 하였으며, 신병제를 정비하였다. 또 밖으로는 국경지대의 방비를 튼튼히 하여, 수십 년간 태평천하를 구가했다. 그러나 노후에 도교에 빠져 정사를 포기하다시피 했다.

119) 劉知幾: 유지기(661-721)의 자는 子玄이고 彭城(지금의 江蘇 徐州)사람이다. 당 高宗 永隆 원년(680)에 진사에 합격했다. 武則天 長安 2년(702)에 처음 史官으로 임명받아

嫌名丸字避之, 科場韻脚用丸字者, 皆黜落. 高宗<sup>120</sup>諱構, 則並勾字諱之, 至改句龍氏爲綵氏, 蓋同音宜避, 亦臣子至情宜然. 唯本朝則此禁稍寬, 然有極異者. 如懿文太子<sup>121</sup>既有諡號矣, 何以少帝<sup>122</sup>仍名允炆? 蓋當時已改尊稱爲興宗康皇帝<sup>123</sup>, 猶爲有說, 而建文年號音同禦名, 舉朝稱之凡四年, 何以不少諱也? 至建文二子, 長名文奎, 次曰文圭, 其音又與炆字無少異, 又何也? 豈拘於太祖所定帝系相傳之二十字<sup>124</sup>耶? 似亦宜變而通之. 當時方<sup>125</sup>黃<sup>126</sup>諸大儒在事, 紛紛優武修

著作佐郎, 左史, 著作郎, 秘書少監, 太子左庶子, 左散騎常侍 등을 역임했다. 공저로 《唐書》 80권, 《氏族志》, 《姓族系錄》 200권, 《睿宗實錄》 20권, 《則天實錄》 30권, 《中宗實錄》 20권 등이 있다. 唐隆 원년(710) 이용기가 태자가 되었는데, 유지기의 '幾'자와 이용기의 '基'자의 음이 같기 때문에, 유지기는 이때부터 태자의 이름자를 피휘하여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자를 사용해 劉子玄이라고 불렀다.

- 120) 高宗: 宋 高宗 趙構(1107-1187)를 말한다. 자는 德基로 南宋의 開國皇帝이다. 宋 徽宗 趙佶의 아홉째 아들로 宋 欽宗 趙桓의 아우이다. 北宋 시기에 康王으로 봉해졌다. 1127년에 徽宗과 欽宗이 金나라로 끌려간 후에 南京 應天府에서 즉위했다. 연호를 建炎으로 삼고 宋나라를 중건했는데, 역사서에서는 '南宋'이라 일컫는다. 그는 主戰派의 抗金 주장을 거절하고, 남쪽으로 도피하여 臨安府를 수도로 삼았다. 建炎 3년(1129)에 苗傅, 劉正彥이 兵變을 일으켜서 趙構가 즉위했으나 재상 張浚이 반란을 평정하고 복위시켰다. 紹興 32년(1162)에 宋 孝宗 趙昚에게 선양했다. 廟號는 高宗이고, 시호는 聖神文武憲孝皇帝이다.
- 121) 懿文太子: 의문태자(1355-1392)는 명 태조 주원장의 장남이자 명 惠宗 朱允炆의 아버지인 朱標이다. 安徽 鳳陽사람이다. 원 至正 15년(1355)에 太平 陳迪의 집에서 태어났다. 朱標는 홍무 원년(1368) 정월에 皇太子가 되었으나 황위에 오르지 못하고 홍무 25년(1392) 병사했다. 시호는 '懿文'이며, 건문 원년(1399)에 孝康皇帝로 추송됐고, 廟號는 興宗이다.
- 122) 少帝: 왕위에 새롭게 오른 어린 황제 혹은 폐위되어 축출된 황제를 가리킨다. 여기서는 두 경우에 다 해당되며 건문제를 말한다.
- 123) 興宗康皇帝: 懿文太子 朱標를 말한다. 각주 121) 참조.
- 124) 太祖所定帝系相傳之二十字: 朱元璋은 자손이 번창함에 따라 이름이 중복될까 염려해서 자손들의 이름에 쓸 수 있는 글자들의 원칙과 방법을 직접 정했다. 이름의 앞 글자는 태조가 직접 고르고, 뒤 글자는 오행순서에 따라서 취했다. 예를 들어 火, 土, 金, 水, 木의 오행의 순서 중 '火'는 주원장의 손자 대에 사용한 편방이었다.
- 125) 方: 方孝孺를 말한다. 방효유(1357-1402)는 浙江省 寧海 사람으로, 자는 希直 혹은 希古이고 호는 遜志이다. 緜城先生, 正學先生으로 불리기도 한다. 명대의 대신이자 학자이며, 문학자, 산문가, 사상가이다. 건문제가 즉위한 뒤 방효유는 한림시강이 되었고, 다시 시강학사, 문학박사로 승진하면서 여러 차례 황제의 정치 자문에도 응했다. 이때 《태조실록》을 편찬하기도 했다. 靖難의 변을 일으킨 燕王 朱標가 즉위하려는 詔書를 작성하는 것에 반대해 주포에게 살해당했다. 南明福王 때에 文正으로 追諡했다. 《侯城集》과 《遜志齋集》 등의 저서가 전해진다.
- 126) 黃: 黃子澄을 말한다. 황자경(1350-1402)은 江西 分宜縣(지금의 大崗山 鄉大坑村) 사람이며, 이름은 滉이고 子澄은 자다. 명초의 관원으로 翰林學士를 지냈다. 명 태조 홍무 18년 회시에 합격해 編修, 修撰, 太常寺卿 등의 관직을 지냈다. 명 惠帝가 즉위하자 翰林學士의 직을 겸했다. 건문 4년(1402), 주체가 황위를 찬탈하자 체포당해 죽었다. 시호

文<sup>127)</sup>, 何以不議及此? 至後章諡號又犯太祖禦諱, 抑更異矣.

## 6. 새문(璽文)

秦나라의 옥새에서 ‘受命於天, 既壽永昌(하늘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천수를 누리고 길이 창성하리라)’ 이란 여덟 글자를 새긴 이후 후세에 이를 시조로 삼았다. 하지만 여덟 자를 사용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현 왕조의 여러 인장들은 모두 네 자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宗廟에 제사 지낼 때는 ‘皇帝尊親之寶’를 썼고, 藩王에게 문서를 내릴 때는 ‘皇帝親親之寶’를 사용했으며, 지방관에게 문서를 내릴 때에는 ‘敬天勤民之寶’를 사용했고, 서적을 구할 때는 ‘表章經史之寶’를 사용했으며, 또 ‘丹符出驗四方’이라는 별도의 옥새도 있었다. 이상의 옥새는 모두 여섯 글자로 되어 있어서 특이한 것들이다. 다만 建文 3년 정월 초하루에 받은 ‘凝命神寶’는 여섯 글자는 아니지만 대단히 특이하다. 예전에 건문제가 황태손이었을 때 神인이 상제의 명을 받고 와서 귀중한 옥새를 주는 꿈을 꾸었다. 건문제가 즉위하자마자 서쪽에서 한 사신이 돌아와 雪山의 푸른玉石을 얻었는데, 사방둘레가 2尺이 넘고 옥돌의 겉이 고우며 윤기가 흘렀다. 이듬해에 齋宮에서 자다가 또 꿈에서 뭔가를 보고는 놀라서 깼다. 곧 장인에게 명하여 이 옥을 다듬어 큰 옥새로 만들도록 명했다. 옥새가 완성되자 지금의 이름을 하사하고 천지와 조상에게 고하고는 온 세상에 알렸다. 백관들이 하례를 마치자 奉天門에서 문무 관리들과 사방의 오랑캐들에게 크게 연회를 베풀었다. 이 옥새의 문장에는 ‘天命明德, 表正萬方, 精一執中, 宇宙永昌(하늘이 내리신 밝은 덕으로 만방을 바로잡아 보이시니, 맑은 정신이 하나로 모여들어 우주는 영원히 번창하리)’이라고 새겨져 있었는데 역시 열여섯 글자였다. 예부터 옥새 중

는 忠愍이다. 작품으로 《李景隆師敗》, 《還洞庭》, 《酬姚六丈》 등이 있다.

127) 偃武修文: 나라의 혼란한 국면을 수습하고 문치와 교화에 힘쓴다는 뜻이다.

에 이렇게 글자가 많았던 것이 없었다. 다만 송徽宗 政和 8년에는 사용하던 여덟 개 옥새 외에 또 옥새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새겨진 문장에서 ‘範圍天地, 幽贊神明, 保合太和, 萬壽無疆(천지를 아우르고 神명의 도움을 받아 크게 화한 기운을 보합하고 만수무강하리라)’이라 했는데, 역시 열여섯 글자였다. 이를 ‘定命寶’라 하니 이것과 딱 들어맞았다.

靖康의 난 때 여러 옥새들은 모두 金나라가 가져가고 이것만 남았다. 高宗이 이것을 가지고 강을 건넜는데 이것이 아마 열 한 개의 옥새 중 열 번째였을 것이다. 아마도 蔡京이 璽文을 썼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 같다. 지금 건문제의 ‘凝命寶’도 영락제가 배척하고 사용하지 않았었다. 두 옥새 모두 상서롭지 못한 물건이 된 것이다. 다만 宣和 연간에 蔡京이 이 일을 할 때 틀림없이 이런 과장되고 황당한 행동을 했었을 것이다. 건문제 때 方孝孺와 黃子澄 등 여러 대신들이 일을 맡고 있었는데, 燕王의 병사들이 날마다 남하하여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이처럼 황당하게 글을 꾸며냈으니 어째서인가?

생각해보면 자고로 인장에는 크기가 직경 1수에 달하는 것이 없는데, 이처럼 크고 우둔한 물건을 건문제가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송대의 ‘정명보’가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역시 9寸이 안 된다.

이보다 앞서 北魏의 文成帝 和平 3년에 河內 사람인 張超가 옛 절터의 허름한 누각에서 옥도장을 얻었는데, 璽文에는 ‘富樂日昌, 永保無疆, 福祿日臻, 長享萬年(부귀와 즐거움이 나날이 번창하여 영원무궁토록 보존하고, 복록이 나날이 쌓이니 길이길이 만수를 누리네)’라고 되어 있었다. 인장의 옥은 빛이 나고 윤기가 흘렀으며 대단히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당시에는 신명이 내려준 것으로 여겨 천하 사람들에게 사흘간 배불리 먹고 마시라 명했다.

고금을 통해 열여섯 글자로 된 옥새는 모두 세 가지가 있다. 하지만 北魏 文成帝가 얻은 것은 겨우 사방둘레가 겨우 3寸 이고 모양이 가장 작아 건문제가 만든 것의 십분의 일에 불과하며 옛 방식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

自秦璽以受命於天既壽永昌<sup>128)</sup>八字爲文, 後世祖之. 然其八字甚少, 本朝諸寶皆

四字。若敬宗廟則以皇帝尊親之寶，賜親藩<sup>129)</sup>則用皇帝親親之寶，賜守令則用敬天勤民之寶，求經籍則用表章經史之寶，又有丹符出驗四方，另爲一璽。以上俱六字爲異，惟建文三年正月朔所受凝命神寶<sup>130)</sup>，則大異矣。先是建文皇帝爲太孫時，夢神人致上命，授以重寶。甫即位，有使者還自西方，得青玉雪山<sup>131)</sup>，方踰二尺，質理溫栗<sup>132)</sup>。二年宿齋宮<sup>133)</sup>又夢若有所睹，驚寤，遂命匠琢此玉爲大璽。至是功成，賜今名，告天地祖宗，宣示遠邇，百官畢賀，大宴文武四夷於奉天門<sup>134)</sup>。璽文曰，天命明德，表正萬方，精一執中，宇宙永昌，凡十六字。古來印璽，未有此繁稱。唯宋徽宗<sup>135)</sup>政和八年于所用八寶<sup>136)</sup>之外，又作一璽，其文曰，‘範圍天地，幽贊神明，保

- 128) 受命於天既壽永昌: 진시황 때부터 옥새를 만들어 썼는데, 당시 재상 李斯가 이 여덟 글자를 새문으로 새겨 넣은 데서 유래한다.
- 129) 親藩: 제왕과 왕실의 친족으로 分封된 자로 藩王을 말한다.
- 130) 凝命神寶: 건문제의 옥새이다. 《明史·卷四·本紀》에 있는 ‘3년 春 정월 辛酉 초하루에 凝命神寶가 완성되자 천지와 조상에게 고하고 황제가 奉天殿에서 조정의 하례를 받았다(三年春正月辛酉朔, 凝命神寶成, 告天地宗廟, 御奉天殿受朝賀)’라는 기록에 의하면 凝命神寶는 건문 3년(1401)에 완성되었다.
- 131) 青玉雪山: 明 朱國禎의 《湧幢小品·卷三·國寶》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건문제가 태자 때에 신인이 상제의 명을 전하면서 귀한 보물을 주는 꿈을 꾸었다. 원년에 사신이 서쪽에서 돌아와 雪山의 靑玉을 얻었는데, 사방둘레가 두 척이 넘고 옥의 결이 곱고 윤기가 흘렀다. 2년 정월에 건문제께서 교외에서 제사를 올리기 위해 齋宮에 묵었는데, 저녁에 본 적 있는 것 같은 꿈을 꾸고는 깜짝 놀라 깨어났다. 옥을 다듬는 사람에게 큰 옥새를 만들도록 명하고 ‘天命의 밝은 덕이 만방에 드러나고 精一하게 중용의 도를 지키니 우주 만방에 영원히 번창하리라’라고 문구를 직접 쓰고는 이것을 ‘凝命神寶’라고 명명했는데, 사방 둘레가 1尺 6寸 9分이었다. 3년에 천지와 조상에게 고하고 그 글귀를 세상에 널리 알리니 백관들이 칭송하며 하례하여 奉天門에서 크게 연회를 베풀었다(建文皇帝在儲位, 夢神人致上帝命, 授以重寶。元年使者還自西方, 得靑玉於雪山, 方踰二尺, 質理溫栗。二年正月, 帝郊祀, 宿齋宮, 夕夢若有所睹, 遂驚寤。命玉人琢爲大璽成, 親製其文曰, 天命明德, 表正萬方, 精一執中, 宇宙永昌, 命曰凝命神寶, 方一尺六寸九分。三年, 告天地祖宗, 爲文宣示遠邇, 百官稱賀, 大宴於奉天門。)’ 원문을 비교해보면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데, 여기에서 ‘靑玉雪山’은 ‘靑玉於雪山’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靑玉於雪山’에서 ‘於’字가 빠진 것으로 추정하여 雪山에서 얻은 靑玉으로 해석한다. 여기에서 雪山은 지금 山東省 沂水縣 雪山을 가리킨다. 해발 371미터로 서쪽으로 흰 색의 땅이 펼쳐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눈과 같다고 하여 ‘雪山’으로 불렸다. 또 산 속에 여우와 이리가 많고 전설에 의하면 신선이 사는 곳이라 해서 ‘大仙山’으로도 불린다.
- 132) 溫栗: 도장의 석질이 윤기가 나고 매우 섬세한 것을 말한다.
- 133) 齋宮: 齋宮은 紫禁城 東六宮의 남쪽에 있으며 毓慶宮의 서쪽에 위치해 있다. 황제가 제사를 올리거나 典禮를 거행하기 전에 목욕재계를 하던 곳이다.
- 134) 奉天門: 奉天門은 1366년에 건립되었는데, 午門으로 들어와서 五龍橋를 지나면 바로 奉天門이다. 그 안쪽에는 奉天殿이 있고 유적지의 규모는 동서 58미터, 남북 40미터이다. 명 성주 주체가 나라의 연회를 거행하고 직접 당시 渤泥國王을 접견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 135) 宋徽宗: 宋 徽宗 趙佶(1082-1135)이다. 북송의 제8대 황제로 神宗의 아들이다. 紹聖 3년(1096) 端王에 봉해졌다. 元符 3년(1100) 형인 제7대 황제 哲宗이 병사하자 즉위했다. 정치는 蔡京 등 寵臣들에게 떠맡기고, 자신은 태평 시대를 맞아 궁정과 정원 등을

合太和，萬壽無疆，亦十六字，命名定名寶<sup>137)</sup>，與此正脗合<sup>138)</sup>。靖康之禍<sup>139)</sup>，諸寶俱爲金所取，唯此獨留。高宗携以渡江抑爲十一寶之第十，蓋以蔡京<sup>140)</sup>所書，故誑之也。今建文之凝命寶，亦爲文皇所斥不用矣。而兩重器俱爲不祥物也。但宣和<sup>141)</sup>間，京<sup>142)</sup>甫用事，宜有此夸誕之舉。革除<sup>143)</sup>時方黃諸正人在事，又燕兵日南，國如累卵，乃亦紛飾虛文如此。何耶。

按自古印章，無大至徑尺者，似此笨物。未知建文朝施用於何所。且宋定命寶號最大，亦不及九寸。又前此，元魏<sup>144)</sup>文成帝<sup>145)</sup>和平<sup>146)</sup>三年，河內人張超<sup>147)</sup>，得玉印于壞樓故佛圖，其文曰，‘富樂日昌，永保無疆，福祿日臻，長享萬年’。其玉光潤，其刻精巧，時以爲神明所授，詔天下大酺三日。古今十六字印，凡三見。然元魏所得，祇方三寸，形模最小，僅建文所作十之一耳，尙存古式。

造營하여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한편으로 문화재를 수집 보호하고 書畫院을 설치해서 궁정서화가를 양성하여, 문화사상 宣和時代라는 한 시기를 연출했다. 詩文과 서화에 뛰어났고, 특히 그림은 전문가의 경지에 달하여 風流天子라는 칭호를 얻었다.

136) 八寶: 천자가 가지는 여덟 종류의 옥새를 총칭한 말이다.

137) 定名寶: 唐太宗李世民이 전수받은 옥새가 없어서 ‘受命寶’, ‘定命寶’ 등의 옥새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138) 脗合: 꼭 들어맞는다는 의미이다.

139) 靖康之禍: ‘靖康之耻’ 혹은 ‘靖康之亂’, ‘靖康之亂’ 등으로 일컫는다. 북송 흥종이 靖康 연간(1126-1127)에 지금의 開封에서 부친 徽宗 외 趙氏 황족, 후비, 신하 등 3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 압송되어 멸망에 이른 사건을 말한다.

140) 蔡京: 蔡京(1047-1126)의 자는 元長으로 北宋 權臣이자 서법가로 이다. 北宋 興化軍 仙游縣 慈孝里亦哈(지금의 福建省 莆田市 仙游縣 楓亭鎮 東宅村) 사람이다. 熙寧 3년에 진사에 급제하여 지방관이 되었으며 이후에 中書舍人, 龍圖閣待制와 知開封府를 역임했다. 崇寧 元年(1102)에 右仆射兼門下侍郎을 거쳐 太師의 자리까지 올랐다. 宋 欽宗 즉위 후 嶺南으로 폄적되었는데, 도중에 潭州(지금의 湖南省 長沙)에서 죽었다.

141) 宣和: 宋 徽宗 趙佶의 연호로 1119년부터 1125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

142) 京: 蔡京을 가리킨다. 각주 140) 참조.

143) 革除: 명대 金宗제가 영락제에 의해 축출된 것을 말하며, 여기서는 정난의 변을 말한다.

144) 元魏: 北魏를 말한다.

145) 文成帝: 北魏 文成帝 拓跋濬(440-465)을 가리킨다. 代郡平城(지금의 山西省 大同市) 사람이다. 北朝 시기 北魏 第5대 황제이며 太武帝 拓跋燾의 손자이다. 景穆帝 拓跋晃의 장자이며 모친은 恭皇后 閻氏이다. 正平 2년(452) 3월에 中常侍 宗愛가 太武帝 拓跋燾를 시해하고, 南安王 拓跋余를 황제로 옹립했다. 같은 해 10월 宗愛가 拓跋余와 尙書 陸麗 등을 시해하고 拓跋濬을 옹립하여 즉위시켰는데, 이가 바로 文成帝이다. 문성제는 즉위 후 宗愛를 주살했다. 재위 기간 동안 불교를 회복시키고 雲岡石窟을 和平 6년(465)에 문성제가 26세의 나이로 병사했다. 시호는 文成皇帝이고 廟號는 高宗으로 金陵에 묻혔다.

146) 和平: 北魏 高宗의 연호로 460년부터 465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147) 張超: 張超(생몰 미상)는 河間國 鄭縣 사람으로 자는 子竝이다. 《魏書·靈征志》에 “高宗 和平 3년 4월 河內人 張超가 성곽 북쪽 불탑이 있던 자리의 허름한 누각에서 옥인장을 얻어 바쳤다(高宗和平三年四月,河內人張超于壞樓所城北故佛圖處獲玉印以獻)”고 기록되어 있다.

〈參考文獻〉

- 張廷玉, 清內府刻本《御定資治通鑑綱目三編》。
- 陶希聖等, 《明代宗教》, 臺北: 臺灣學生書局, 1968。
- 張廷玉等撰, 《明史》, 北京: 中華書局, 1974。
- 魏收撰, 《魏書》, 北京: 中華書局, 1974。
- 邱樹森主編, 《中國歷代職官辭典》,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1991。
- 萬依主編, 《故宮辭典》, 上海: 文匯出版社, 1996。
- 張搗之, 沈起煒, 劉德重主編,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 瞿鳳起·潘景鄭·黃虞稷著, 《千頃堂書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 陳寶良, 《明代社會生活史》, 北京: 會科學出版社, 2004。
- 吉林出版社編, 《御定資治通鑑綱目三編》, 吉林: 吉林出版社, 2005。
- 佚名編纂, 《鈔本明實錄》, 北京: 線裝書局, 2005。
- 龔延明著, 《中國歷代職官別名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6。
- 李東陽等著, 《大明會典》共五冊, 揚州: 廣陵書社, 2007。
- 趙中南等著, 《明代宮廷典製史》, 北京: 紫禁城出版社, 2010。
- 朱國禎, 《湧幢小品》,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沈德符撰, 楊萬里校點, 《萬曆野獲編》共三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屠叔方, 《金陵全書: 建文朝野彙編》, 南京: 南京出版社, 2013。
- 沈德符撰, 《萬曆野獲編》全三冊, 北京: 中華書局, 2015。
- 賀軍, 《沈德符與〈萬曆野獲編〉》, 內蒙古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8。
- 李媛, 《明代國家祭祀體系研究》, 東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 季群英, 《〈萬曆野獲編〉文學史料類纂考辨》, 華中師範大學中國古代文學碩士學位論文, 2010。
- 李君, 《明代文官制度與明代文學》, 南開大學中國古代文學博士學位論文, 2013。
- 胡昭曦, 《〈宋神宗實錄〉朱墨本輯佚簡論》, 《四川大學學報》01期, 1979。
- 張秀芳, 《沈德符與〈萬曆野獲編〉》, 《文史知識》05期, 1992。
- 陳楠, 《明代大慈法王釋迦也失在北京活動考述》, 《中央民族大學學報》04期, 2004。
- 楊繼光, 《〈萬曆野獲編〉點校獻疑》, 《江漢大學學報》第30卷第2期, 2011。
- 胡夢飛, 《明代〈萬曆野獲編〉的寫作特點及其史料價值》, 《徐州工程學院學報》第27卷第6期, 2012。
- 王福梅, 《明皇室與北京洪恩靈濟宮》, 《中國道教》第2期, 2012。



林家豪, <沈德符史學思想探析—基于《萬曆野獲編》的史料記載>, 《嘉興學院學報》 02 期, 2015.

宋貞和·李承信·蔡守民, <《萬曆野獲編》 翻譯 吳 註釋(1)>, 《中國語文論叢》 第77 輯, 2016.

### < Abstract >

Annotating and Translating Wanli Yehuo Bian by Shen, Defu(III)

Song, Jung-hwa · Lee, Seung-shin · Chae, Su-min

Wanliyehuo bian, written by Shen, Defu who is a writer of Ming Dynasty, describes laws and regulations, races and diplomatic relations, natural environment, religions and cultures in the way of an essay, Biji.

This paper selects five articles of The Chronicles of Emperors: Sibaiguanshi: Bestowal food on officials, Guochushilu: Annals of the beginning of dynasty, Jianxiushilu: Supervision of the annals, Bihui: Naming taboo, Xiwen: Signature of the Royal seal. We translated and annotated these five articles in Korean.

Wanliyehuo bian is worth discussing from the historical and literary perspectives. Especially The Chronicles of Emperors has distinct historical values.

Guochushilu and Jianxiushilu show us the way Shen, defu thinks about authentic history and criticize history distortions done by official historians. Sibaiguanshi describes memorial holidays, official ceremonies and the variety of food provided by Emperors.

Bihui explains specific cases about naming taboo, for example the First Emperor Zhu, yuanzhang made a special rule for naming taboo to discourage the use of the emperor's given name and those of his ancestors. Also, he made

it to avoid confusions of names of his direct descendents.

Xiwen describes how the royal seals were made and the sentences were engraved.

Key words: Wanliyehubian, Shen, Defu, Ming Dynasty, Sibaiguanshi, Guochushilu, Jianxiushilu, Bihui, Xiwen, historical values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07. 31.	2017. 08. 27.	2017. 08. 30.	2017. 09. 11.	2017. 09. 30.